초고령 축산농 절반 “후계자 없다”

65세 이상 44.3% 고령화 심각

기반 붕괴 위기 승계 대책 시급

증여·상속세 등 세금경감 필요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장기적 차원의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산농가의 영농승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을 경우 축산 생산기반 약화 등으로 머지않아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전국 축산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 및 승계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기준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은 44.3%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인구 비율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각각 분류된다. 축산농가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보다 3.6배, 농업분야의 고령화율 36.8%보다 1.2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은 4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특히 산란계(49.2%), 육계(48.5%), 한우(45.5%), 오리(40.9%)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비율이 높았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한 선결 과제 〈단위:%〉

	전체	승계자 확보	승계자 미확보
기업 및 영농 승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	30.9	32.2	29.2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세금부담 경감조치	26.8	25.8	28.1
승계 인력 육성 및 지원	13.4	15	11.2
증여 및 상속에 대한 법률 절차의 간소화	24.3	25.8	22.5

그러나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대비한 영농 승계자 확보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자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0.6%가 ‘확보됐다’고 밝힌 반면 49.4%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7.8%는 ‘승계계획이 없다’고 밝혀 고령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축산관련 자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2%가 ‘축산을 계속할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답했다. 승계자가 확보된 축산농가의 경우 80%가 ‘축산을 계속한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승계자가 미확보된 축산농가는 ‘잘 모르겠다’(27%) ‘매도하겠다’(25.8%) ‘상속하지 않겠다’(23.6%) ‘다른사람에게 위탁하겠다’(6.7%) 순으로 답했다.

영농승계 계획시 어려운 점으로는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부담 문제’(18.0%) ‘축산분야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미비’(14.4%) ‘증여·상속에 대한 법률 절차 및 지식 부족’13.4%) 등을 꼽았다.

승계자가 확보된 축산농가는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부담 문제’(20.2%), 승계자가 미확보된 축산농가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다’(17.7%)는 점을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증여세·상속세 등의 세금부담 경감조치가 선결과제”라며 “승계자가 확보된 농가와 승계자가 확보되지 않은 축산농가를 구분한 후 맞춤형 지원전략을 추진해야 가업승계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축산농가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축산 농민이 축사에서 송아지에게 볏짚을 먹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농협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대행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산소 벌초대행 서비스 모습. 〈농협전남본부 제공〉

추석맞이 벌초 전화 한통화면 끝

농협전남본부 대행서비스

대행비용 5만～12만원선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어려운 출향민들이나 노인들을 대신해 산소관리 대행서비스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92개 지역농협에서 신청받아 지역내 마을 청년회나 영농회를 연결해 이뤄진다.

대행 비용은 차량진입이나 작업내용, 위치 등에 따라 5만～12만원선이다. 농가소득증대와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이용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벌초가 끝난 묘소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벌초 대행 외에도 석물을 설치하거나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잔디를 새로 입히는 사조작업, 이장, 가묘, 조경서비스 등도 병행해 실시한다.

박종수 본부장은 “정직과 신뢰로 자신의 조상 묘를 벌초하듯 온 정성을 기울여 농협을 이용한 벌초대행 서비스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는 농외소득을 올리고 신청인은 벌초와 고향도 도울 수 있어 일석이조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농협장례지원단 홈페이지 (www.jangrae.co.kr)를 통해 해당지역 농협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289-713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월 전남 어업생산량 작년비 반토막

다시마·미역 양식 크게 줄어…전국 점유율은 여전히 1위

지난 6월 전남의 어업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대비 점유율은 가장 높아 국내 최대 어도 자리를 고수했다.

호남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전남 어업생산량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의 어업생산량은 6만9178t으로 전년 동월(13만4169t)에 비해 무려 6만4991t, 48.4%의 큰 감소를 보였다.

이는 천해양식어업이 지난해 6월 12만2589t에서 올해 6월 5만7981t으로 52.7%(6만4608t)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일반해면어업 2.6%(1만1134t→1만848t), 내수면어업 22.2%(446t→348t)이 각각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천해양식어업의 주요 감소 어종은 다시마류 59.3%(7만624t), 미역류 80.7%(92t) 등이었고, 증가 종은 톳 902.4%(5234t), 홍합류 169.8%(552t), 전복류 60.1%(327t)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주요 감소 어종은 바지락 90.3%(963t), 병어류 70.0%(967t), 아귀류 43.4%(89t), 갑오징어류 45.7%(79t), 붕장어 22.7%(47t), 조피볼락 34.4%(42t), 낙지류 32.4%(166t) 등이었다. 주요 증가 어종은 멸치 42.4%(728t), 젓새우류 50.9%(635t), 갯장어 133.3%(136t), 민어 88.9%(56t) 등이었다.

내수면어업의 주요 감소 어종은 메기 97.6%(40t), 뱀장어 14.0%(44t), 미꾸라지 78.6%(22t) 등이었고, 주요 증가 어종은 큰논우렁이 25.0%(3t)였다.

전남은 지난 6월 어업생산량 감소에도 불구, 전국 생산량의 53.0%를 차지해 여전히 국내 최대 어업생산량을 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8, 9월 두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한다.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펼친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8월12일부터 8월21일까지 축산물 및 건강·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어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는 추석 수요가 몰리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농관원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5P－13층
• 실평－9P
• 방향－무등산
• 대출－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5천만원
• 매매가－3천5백만원

29P－사무실 적합
• 실평－18P
• 방향－하천
• 용도－주거겸 사무실
• 대출－2천5백만원～3천만원 가능
• 임대－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1억 정도
• 매매가－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 실평－33P
• 방향－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주거겸 사무실
• 대출－5천만원～1억원 가능
• 임대－보1천만원에 월100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2억 정도
• 매매가－1억5천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